

지역 매 아리

김제시, 2019년 시무식 개최

김제지평선축제, 2년 연속
글로벌 육성축제 선정 쾌거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김제지평선축제가 최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축제 평가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2년 연속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는 1999년 탄생하여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 연속 최우수 문화관광축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 최초 5년 연속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문화관광축제의 최고 등급인 글로벌 육성축제의 반열에 올라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불리고 있다.

5대 글로벌 육성축제 중 유일하게 전통 농경문화를 테마로 한 지평선축제는 올해 제20회를 맞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온가족 웃음 가득한 축제'라는 슬로건에 맞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확충하고 관광객 중심의 행사장 배치와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수요자형 축제로 전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하는 축제를 만드는데 성공하여 관광객이 많은 만족도 1위 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다.

특히 올해는 축제를 통한 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김제 쌀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려 농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켜 대한민국 지역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어느 해 보다 빛나고 성공적인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 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박준배 시장 신년사 “다 함께 열어나가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

김제시(박준배 김제시장)는 2일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실과소, 읍면동 등 전 청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근무를 알리는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2019년을 힘차게 열기 위한 김제시합창단 공연을 마친후 이어 박준배 김제시장의 2019년 신년사가 이어졌다.

이번 신년사를 통해 박준배 김제시장은 “2019년은 새롭게 출발한 민선7기의 궁극적 목표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한 주춧돌을 본격적으로 쌓아 올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2019년 시정방향을 ‘다 함께 열어나가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정하고 7대 세부시책을 발표하며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지난 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스마트관 혁신벨리를 유치하고 국가 예산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인 7,031억원을 확보했으며 정부혁신평가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등 33개 시장 각 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며, “이 모든 것들이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김제시민과 공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제시는 2019년 시무식 시작에 앞서 군경묘지와 성산공원에서 간부공무원 및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김제시는 2일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읍면동 등 전 청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참석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과 헌화 등 참배를 거행하였으며, 시무식 종료 후에는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시의회와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2019년 시정현안을 잘 해결해 나가자는 내용의 간담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을 거두었다.”며, “이 모든 것들이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김제시민과 공직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유지시성으로 15만 자족도시 완주 매진”

완주군, 2019년도 시무식 열어

김제시농업기술센터, 8일~2월 15일까지
2019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완주군이 2019년도 시무식을 통해 ‘유지시성(有志事成)’ 자세로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 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2일 완주군은 군청 문예회관에서 직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고 새해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박성일 완주군은 이날 시무식에서 “2019년도는 15만 자족도시 완주의 원년이다”며 “2025년은 완주군이 전주에서 분리된 지 90년으로 새로운 100년의 청사진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행복으로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고 말했다.

박 군수는 또한 “완주군의 청의, 자율행정을 추구하고 있고, 이는 책임



2일 완주군은 군청 문예회관에서 직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열었다.

을 요구한다”며 “직원 개개인이 군수라는 생각으로 10만 완주군민을 위해 책임행정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시무식 이후 박성일 군수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떡국을 함께 먹으며 새해 덕담을 나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놀토피아가 운영 9개월 만에 세외수입 4억1000여만원, 유료 이용자 5만7000명이라는 실적을 달성했다.

‘놀토피아’ 새로운 놀이문화장 열다

완주군, 어린이·청소년 체험 관광명소 조성
6세 이하 유아는 2000원 등 관내 군민들 혜택 강화

완주군 놀토피아가 어린이·청소년 놀이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에 정식 개장한 완주군 놀토피아는 어린이·청소년 체험관광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첫 번째 작품이다.

운영 9개월 만에 세외수입 4억1000여만원, 유료 이용자 5만7000명이라는 실적을 달성했다.

놀토피아의 폭발적인 인기는 완주군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인근의 고산미소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완주군은 놀토피아 이용객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 요금도 낮췄다.

어린이 이용자 기준으로 주말·

휴일은 9000원에서 8000원으로, 평일은 7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하했다. 특히, 기존 어린이 요금이 적용됐던 6세 이하 유아는 2000원으로 단일요금을 적용시켜 이용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관내 군민들의 혜택도 더욱 강화했다. 지역민 할인율을 30%에서 40%로 높여(주말·휴일 어린이 이용 요금 6,300원→4,800원) 요금 부담을 크게 덜었다.

이에 더해 시설 디자인 개선사업을 진행,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놀토피아 옆에 자리한 기존 전통문화체험관과 울 언말에 준공예정인 청소년 전통문화체험관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중국어캠프 입소식

초·중학생 60명 우석대서 3주간 진행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사장 박성일)의 중국어캠프에 60명이 참가한다.

2일 완주군인재육성재단은 우석대학교에서 완주군중국어캠프 입소식을 가졌다.

이날부터 시작해 오는 19일까지 약 3주간 운영되는 중국어캠프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방학 중 캠프다. 캠프에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중학생 60명이 참여했다.

중국어캠프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해외연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캠프 진행기간 동안 학생들이 중국어를 최대한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 수준별로 5개의 학급을 편성해 학급당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보조교사가 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퀴즈대회, 신문 만들기, 웅변대회 등 다양한 활동수업을 병행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문원영 부군수는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고 중국어는 제2외국어로 자리 잡고 있어 경쟁력이 매우 높다”며 “완주군은 방과후 학교 중국어강사지원, 중국어 학교운영, 중국어 캠프 등 다양한 중국어 사업을 통해 지역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